진우 스님 "선명상 생활 실천이 불교"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서 강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선명상은 부처님 법을 이 시대에 가장 쉽게 알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불교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5초간 멈춰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일상 속에 5분 정도 무시로(언제 어디서나) 진행하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상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선명상에 담겨 있는 불교의 정신과 실천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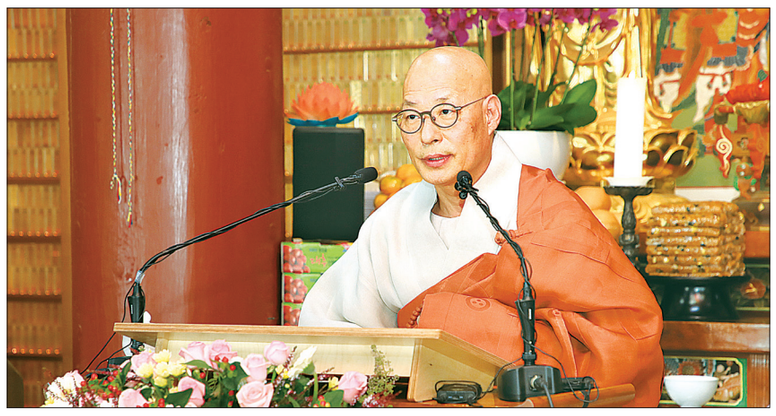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7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선명상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범어사는 현재 백중지장기도를 진행 중이며, 90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선지식 초청 법석을 열고 있다. 범어사가 진행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법사로 범어사를 방문한 진우 스님은 자살 1위인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 대안으로 선명상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대국으로 경제 규모가 5위에 해당한다.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개개인의 경제력도 뛰어난 나라가 되었지만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며 "병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0여 사부대중 널리 동참해
선명상 포교 한국 불교의 해답
현대인에 맞게 전법·포교해야

이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일체 중생이 살기 위해 부처님 법을 현대인에 맞게 풀어 전법포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선명상을 주제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며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첫 번째로 '우선 멈춤'이다. 5초만 멈추면 크고 작은 사고를 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상대에게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0.2초이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5초이다"며 "또한 5분 무시로 명상이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5분만 명상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힘든 순간이 와도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상을 기억하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나눔의 삶,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불국정토를 앞당길 불자가 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는 이날 7재를 이어 8재는 7월 20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법문하며, 9재 7월 27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10재 8월 3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11재 8월 10일 BTN 광우 스님의 소나무 광우 스님, 막재 8월 17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법문하며 마지막 회향일 8월 21일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이 법문한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 박진용 5대 회장 취임

7월 13일 회장 이 · 취임식

부산남해불교신도회(회장 박진용)가 7월 13일 부산 해남 뷔페에서 불기 2568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진제 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법산 대종사, 박문옥 전 회장, 박진용 신임 회장 등 회원이 동참했으며, 1부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취임식은 취임사 및 취임회장 꽃다발 증정, 법어, 격려사, 축사, 공로패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법어를 통해 진제 법원 대종사는 "산승의 이 고준한 법문 한마디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그로 좇아 지혜의 싹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으면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되리니, 여러분 잘 받아 가져가 달라"며 "그동안 박문옥 회장께서 부산남해불교신도회를 잘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금일 박진용 거사가 제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신임 회장의 신심과 원력을 좇아 모든 회원들이 일심으로 화합하여 삼보(三寶)의 외호와 수행정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는 7월 13일 부산 해남 뷔페에서 불기 2568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박진용 신임 회장은 "우리의 사명은 불교에 귀의하고 포교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또한 양적 포교와 더불어 마음을 닦고 해탈하려는 노력을 적극 병행해 더욱 수행정진하는 신도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임하시는 박문옥 회장은 부산남해불교신도회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그간 헌신적인 노고에 본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 함께 해주신 전 집행부에도 무한한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박문옥 전 회장은 "여러분들의 자비심과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무사히 신도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신임회장이신 박진용 회장은 불심이 깊고 기획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무애심으로 모임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는 창립 전 한옥두 초대회장이 삼사순례를 주최하며 신행활동을 이어왔으며 2009년 7월 12일 창립됐다. 창립 이후 KBS 부산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취임 축하 대법회를 개최하고, 전국 삼사순례 및 참선 수행 등 수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음악회

7월 27일 범어사서 개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후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7월 27일 오후 3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제2주년 기념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창립을 기념하는 2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녹색사찰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어 음악회는 여여한 중창단, 한여울 오케스트라, 팬올린 D의 연주 등 전문음악가의 무대 펼쳐진다.

음악회 주제는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이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고 후원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이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함께 지구 환경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생명을 위한 활동이 더욱 펼쳐지고 환경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 녹색 활동에 관심을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10-2134-880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각사, 반려동물 위한 무료 천도재

8월 25일, 대원각사 경내서

반려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이 열린다.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8월 25일 오전 11시 부산 장산 대원각사 경내에서 '반려동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참여 대상은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기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가능하다. 아울러 살아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접수 시 반려동물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반려동물 사진과 기념품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원각사는 "일체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고귀하다"며 "생명과 인연을 맺어 잘 보살피고 가족처럼 지낸 반려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바른 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51-701-882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갑진년 하안거 대중공양

7월 16일 100인분 공양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7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갑진년 하안거 대중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송재린 부산지역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직접 공양 음식을 만들어 수행 정진 중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은 유부초밥, 떡볶이, 과일 등 다채로운 채식 메뉴 100인분을 장만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안거를 맞아 법화경 독송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지역단 34개팀이 2회씩 독송 수행하고, 수행 기간 동안 십시일반 후원했다.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은 "매년 안거마다 포교사들이 함께 수행동참하고 승보공양과 나눔으로 회향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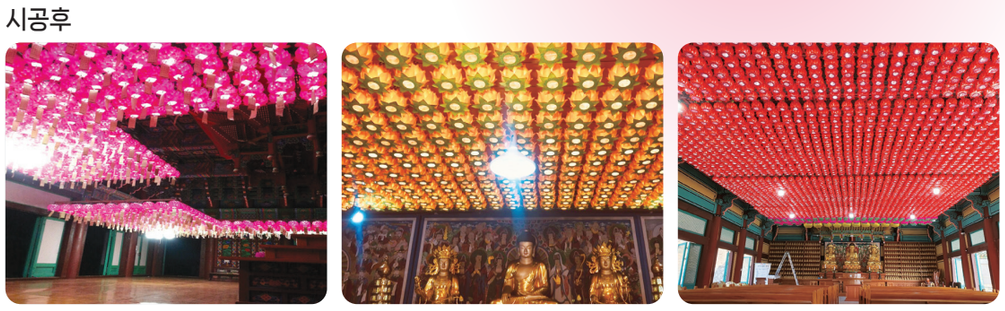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이번 하안거 기간 중 70일 동안 '법화경' 전권 10권을 릴레이 독송 정진 중이며 회향은 다가오는 7월 28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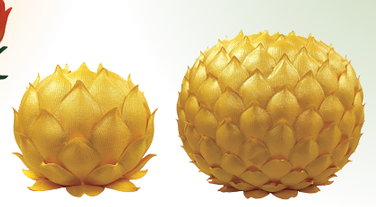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